

## 실패에서 교훈을 붙잡다.

성경본문 <신명기 1장 26절 ~ 40절>

[26]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거역하여 [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34]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8]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0]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모세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고, 그 곳에 있었던 일은 광야 40년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부터 38년이 지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고, **실패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 1.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미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싫어하는 것보다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태도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 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분명히 하셨으며,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안는 것같이 행하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패역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를 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생명책에서부터 지워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십니다.

고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지 못했던 것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2.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38]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모세는 자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곳에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며,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아이들과 자녀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당시에 아이였던 사람들, 자녀였던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명하여 다시 한 번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이자 명령이 되었습니다.** 새 시대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교훈은 자신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던 부모들이 이미 다 죽었고, 이제 40여 년 전에 예언했던 대로 자신들이 약속의 땅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2.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